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김유*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알고마대학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수세인트마리'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수세인트마리는 온타리오주의 대도시인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또한 수세인트마리는 미국 국경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환승하여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도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수세인트마리에 도착했습니다(인천-나리타-토론토-수세인트마리).</p> <p>알고마대학교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작습니다. 저희가 갔을 땐 현지학생들의 방학기간이라 학교가 조용했습니다. 저희같은 외국인 학생들(일본인, 중국인 등)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3주간 공부했던 건물에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speak easy'라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점심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날씨가 좋을 땐 건물 바깥에 있는 벤치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speak easy에서 조금만 더 가면 Tim Hortons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나왔거나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배고플 때 가게 됩니다. ESL office는 저희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등곳길에 버스에 우산을 두고 내린 적이 있는데 ESL office에 말씀드렸더니 찾아주셨습니다!</p> <p>그리고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일본인입니다. 한국인 학생은 저희 밖에 없었습니다.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p>
수업	<p>수업은 저희 순천향대학교학생 10명끼리 들었습니다. 레벨테스트나 분반은 없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도착하여 그날 밤은 씻고 바로 잤습니다.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프로그램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날엔 알고마대학교 단기어학연수 담당자분들을 만나고 3주간 저희를 도와줄 현지 유학생들(3주간 중국인 유학생 제이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소개받습니다.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캠퍼스 투어를 했습니다. 점심엔 ESL office에서 준</p>

비해 주신 피자파티를 했습니다. 그 후엔 강의실에서 홈스테이 전반적인 부분, 버스로 등하교 하는 법 등을 배웁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업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세 분의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Speaking(Andrea 선생님). Reading, Writing and Grammar(Julia 선생님)

Tech in the classroom(Darren 선생님)

Speaking 수업 땀 유의어, 반의어, 처음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의 매너, 완곡어법, tongue twister, 발음 등을 배웁니다. 주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pet peeve에 대해 1분~1분 30초 정도의 발표를 준비해오는 것과 English joke를 조사해오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3주 내내 강의실에서 진행되지만 Reading, Writing and Grammar 수업과 Tech in the classroom 수업은 주로 컴퓨터실에서 진행됩니다. Julia 선생님과 Darren 선생님 수업은 Speaking 수업과는 다르게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Darren 선생님 수업의 컨셉은 'Tech in the classroom'으로 수업시간에 컴퓨터, 음악을 사용하여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Darren 선생님 수업시간에 padlet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개인 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프로그램 기간동안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activity도 많이 하게 되는데 Darren 수업시간마다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페이지에 activity를 하며 찍은 사진을 올리고 사진에 대한 한 줄 설명을 씁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날엔 교실에서 팝송을 들으며 가사 빈 칸 채워넣기와 팀을 이루어 가사가 적힌 종이 조각을 배열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Julia 선생님 수업 땀 Darren 수업과 비슷하게 wordpress 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각자 개인 블로그를 만듭니다. 3주 동안 이 블로그에 일기를 써야합니다. Darren 수업은 사진에 대한 한 줄 설명쓰기이지만 Julia 수업 땀 최소 280자 이상 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arren과 Julia 수업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280자 이상 쓰지 않아도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본인이 열의를 가지고 쓰면 그만큼 쓰기 실력이 향상될거구요,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이다보니 지루하지도 않고 블로그에 기록이 계속 남아있어 나중에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고르는 소소한 재미도 있구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글을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기 쓰는 것 하나만으로 reading, writing, grammar 모든 걸 해결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Julia 선생님의 formal한 수업은 두 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의 올바른 사용법, 한 번은 Residential School에 대한 article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수업이었습니다.

	<p>그리고 마지막 주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WORD파일로 memory book 만들기를 합니다. 에이포 두 장정도로 그 동안의 추억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예쁘게 꾸미면 됩니다. 출국 전날 10명 모두의 추억이 담긴 메모리북을 기념으로 줍니다.</p>
Activity	<p>개인적으로 알고마대학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알찬 activity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첫 주부터 정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첫 주 수요일 학교 근처 Jade wellness라는 요가센터에서 캐나다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두 시간 가량 영어이름 한글로 쓰기, 부채접기, 젓가락으로 마시멜로 옮기기, 팅팅탱탱게임(술게임이지만 이름게임으로 순화ㅋㅋㅋㅋ)를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려 주기 위해 어떤 게임, 활동을 할 것인지는 그 전날 Julia 선생님 시간에 함께 의논하여 정했습니다. 2인 1조로 하나씩 맡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와 함께 부채접기를 맡았는데 아이들에게 부채접는 방법을 영어로 설명해주기 위해 글을 써보고 줄리아 선생님 앞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게임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색종이, 나무젓가락, 마시멜로 등등)은 줄리아 선생님께서 학교 돈으로 사다 주십니다! 그 후엔 Muio's 라는 식당에서 치킨, 감자튀김, 샐러드 셋트를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비용을 지불해줍니다! 식사를 마친 후엔 스쿨버스를 타고 딸기농장에 갔습니다. 딸기도 따고 친구들이랑 예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ㅎㅎㅎ. 딸기는 파운드당 얼마 이렇게 해서 각자 돈 내고 사야해요! 안사고 싶으면 딸기를 안따면 됩니다ㅎㅎㅎ 친구 따는 거 도와주거나 그늘에서 쉬세요. 다음날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ROTARY FESTIVAL 이라는 수세인트마리 여름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매년 여름 열리는 축제로 학교에서 버스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먹거리들을 팝니다. 저희는 이 축제에서 2인 1조, 3인 1조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축제 첫 날인 목요일은 비가 많이 와서 철수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둘째 날은 다행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Painting 부스를 맡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러 올 때마다 물감이 묻어도 되는 흰 티셔츠를 입혀주고 물감을 고르도록 하고 새 도화지를 찢어 이젤에 끼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봉사활동에 외국인인 저희를 투입시켜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ㅋㅋㅋㅋ. 캐나다 어린이들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영어로 도움을 청할 때마다 뭔가 뿌듯했어요ㅋㅋㅋㅋ. 쉬는 시간엔 다른 부스도 구경하고 어린이들이랑 사진도 찍고 먹거리도 사먹으며 놀았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토요일엔 축제 일부인 컬러런에 참가했습니다. 알고마대학에서 제공해준 대학교 티셔츠를 입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참가비가 2만원 정도인데(티셔츠, 선글라스, 등번호표 제공, 일부 기부금) 학교에서 비용 내</p>

	<p>줍니다. 한국에서도 참여해본 적이 없는 컬러런을 캐나다에서 해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다행히 이 날도 날씨가 화창했네요! 자외선이 정말 강하니까 팔다리 썬크림 꼭 다 바르셔야해요!</p> <p>둘째 주 화요일엔 Pathway라는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은퇴 후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Jade wellness에서 했던 활동과 똑같은 내용)를 가르쳐드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목요일엔 오전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에 모카신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쳐줍니다. 한땀한땀 바느질해보니 캐나다 기념품 가게마다 있었던 수제 모카신이 비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엔 오전수업을 마치고 일본음식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스시, 롤, 튀김, 볶음밥 등 모든 요리를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음식에 가까운 음식들이라 정말 많이 먹었어요ㅠㅠ 비용도 학교에서 지불해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whitefish island라는 곳으로 산책(?)을 갑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강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토요일엔 Agawa rock과 슈퍼리어호로 놀러가는 일정이 있는데 저는 홈스테이 가족과 캠핑을 가기로 하여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Agawa rock은 가지 못했지만 캠핑장 바로 옆에 슈퍼리어호가 있었습니다. 오대호 중 가장 큰 호수인 슈퍼리어호는 바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면적의 호수입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살면서 본 자연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었습니다. 저는 래쉬가드 챙겨가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물놀이 하면서 놀았어요. 역시 이 날도 자외선이 강해서 살이 엄청 탔네요. 썬크림 정말 듬---뽍 바르세요TT.</p> <p>마지막주 월요일엔 점심을 먹고 학교 근처 비행기 박물관을 갔습니다. 구경 후 Tim Horton's에서 도넛과 커피를 먹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지불해줍니다.</p> <p>알고마대학 측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에 신경을 쓴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p> <p>모든 activity는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진행되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최고 온도가 27-28도입니다. 주로 아침 최저 15, 오후엔 23-25도입니다. 땀 흘릴 정도로 더운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어놔서 많이 추웠어요ㅠㅠ 여름옷(반팔, 반바지) 챙겨가시되 얇은 맨투맨이나 가디건도 몇 개 준비해가세요. 긴바지도요! 슬랙스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비는 두 번, 세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p>

안전	<p>치안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정말 길어요. 밤 9시에도 낮처럼 환하답니다. 하루가 길어요! 이곳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예요 ㅋㅋㅋ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해요~</p>
숙소	<p>제가 살았던 홈스테이 가족은 mom, dad 둘 뿐이었고 저랑 동갑이고 3개월 쯤 머무르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9명의 우리학교 학생들의 홈스테이 집에도 다 일본인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 친절해서 3주 동안 서로 정말 친해졌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한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 하우스메이트랑 저랑 늘 같은 시간에 수업이 끝나서 종종 같이 집에 갔습니다.</p> <p>제 하우스메이트 방이랑 제 방이랑 마주보고 있었고 mom, dad 방은 제 방 옆에 있었습니다. 제 방엔 소파와 큰 침대, 옷장, 책상이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하우스메이트와 저는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을 썼습니다. 일본인 친구랑 저랑 둘만 쓰니까 편하긴 했지만 내려가는 게 가끔 귀찮았습니다. 저녁식사는 6-7시 사이였습니다. 홈스테이 밥을 먹을 거면 6시 30분 전으로 집에 가는 것이 좋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저는 LINE으로 연락했습니다.</p> <p>저희 홈스테이 엄마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셔서 밥을 먹으면서도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대화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항상 대화의 시작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엄마는 일본인 친구와 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열정적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단어와 속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고요ㅋㅋㅋㅋ 밥을 먹고 나서는 방에서 쉬거나 일본인 친구와 지하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영어로 둘러싸인 환경이었습니다.</p> <p>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오후 7시 이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샤워는 원래 아침에 하는 편이라 아침에 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 외부식당 ( ) 기타( )</p> <p>홈스테이 집에서 따로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냉장고에 홈스테이 엄마께서 저희를 위해 사 놓은 요플레와 우유, 주스 등이 있었는데 가끔 요플레를 먹거나 원래 아침밥을 먹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홈스테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다음날 점심으로 챙겨가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남겼기 때문에 점심을 사먹은 적도 많지 않습니다. 저녁 메뉴는 스파게티, 파이, 라자냐 등이었습니다. 매일 서구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밥이 정말 그리웠지만 맛있게 먹으려고 했습니다.</p>

	<p>수세인트마리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후 딱히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쇼핑할 곳도 한 군데로 항상 정해져 있구요ㅋㅋㅋ 그래서 웬만하면 집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p>
교통	<p>수세인트마리 내 버스가 총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모든 버스들이 매시 15분, 45분까지 터미널로 모여서 매시 15분, 45분에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터미널은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에요.</p> <p>홈스테이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번호의 버스를 타게 되지만 알고마 대학에 가기 위해선 모두 터미널에서 내려서 4번 버스를 타야해요. 4번 버스를 쭉 타고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집 바로 앞에서 7번 버스를 타고 5분정도 걸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7번 버스는 저희 집 앞 정류장에 정각과 30분마다 왔습니다. 10시까지 등교하기 위해 저는 집 앞에서 9시 30분에 7번 버스를 탔고 터미널에 내려서 9시 45분에 출발하는 4번 버스를 탔습니다. 집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었고 터미널까지도 멀지 않아서 아침에 등교하기는 매우 편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알고마대학까지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 앞 정류장에 내리면 항상 딱 10시이곤 했는데 수업이 5분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집에 갈 때는 등교할 때와 같은 버스를 타면 됩니다.</p> <p>3주 동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bus pass를 학교에서 제공해줍니다. 사비로 사려면 비싸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전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activity는 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p> <p>버스는 터미널에서 오후 6시 전까지만 매시 15분, 45분에 탈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로는 6시 15분, 7시 15분, 8시 15분....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만 탈 수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 쇼핑을 하다가 6-7시 사이 홈스테이 밥을 먹기 위해선 터미널에서 5시 45분 버스나 6시 15분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11시 15분입니다.</p> <p>터미널에서 5분정도 걸어가면 station mall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수세인트마리 내에 쇼핑 물이 그곳 하나 밖에 없는 줄 알아서 3주 내내 station mall만 다녔는데 귀국 바로 전날에 cambrian mall이라는 쇼핑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cambrian mall엔 화장품이 많고 station mall엔 월마트가 있어서 맛있는 과자를 많이 살 수 있어요ㅎㅎㅎ 물놀이 할 때 신을 쪼리나 샌들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한국에서 사가지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station mall 안에 싼 가격의 관창은 슬리퍼, 쪼리, 샌들 많이 팔아요!</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간식, 음료	100,000	
쇼핑, 기념품, 선물	230,000	
합계	33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수세인트마리에 여름에 가게 되실 분들! 추울 때 걸칠만한 옷 꼭 챙겨가세요. 자외선 강하니까 선글라스랑 썬크림도 꼭 챙기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 쓸 일이 많이 없어요. 특히 식비요. 갈 때 100만원정도 환전해 갔는데 많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이 안 썼네요. 수세인트마리에서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변화한 지역도, 큰 도시도 아니고요. 그만큼 캐나다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영어로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귄 수 있고요.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일본인 친구들이지만요 ㅎㅎ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싶고 알찬 방학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전까지 수세인트마리라는 지역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작은 도시라는 정도만 알 수 있었습니니다. 대도시인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반, 차로는 7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 하여 쇼핑이나 관광과 같은 기대는 하지 않고 떠났습니니다. 실제로 쇼핑몰의 규모도 큰 편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관광을 갈 만한 곳도 없습니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은 오히려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파견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연수라는 말에 걸맞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니다. 알고마대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유익했습니니다. 학교에서 스케줄에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었습니니다. 아무래도 방과 후나 주말에 학생들이 가볼 만한 관광지가 없으니 알고마대학 측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겨울프로그

램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알고마대학 여름프로그램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 중국인 교환학생들을 보면서 그 동안 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일본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꿈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더군요!! 뭔가 동기부여가 된..? 3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마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네요!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배우는 내용도 달라지고 위와 같은 야외활동도 많이 하지 않겠지만 수세인트마리라는 지역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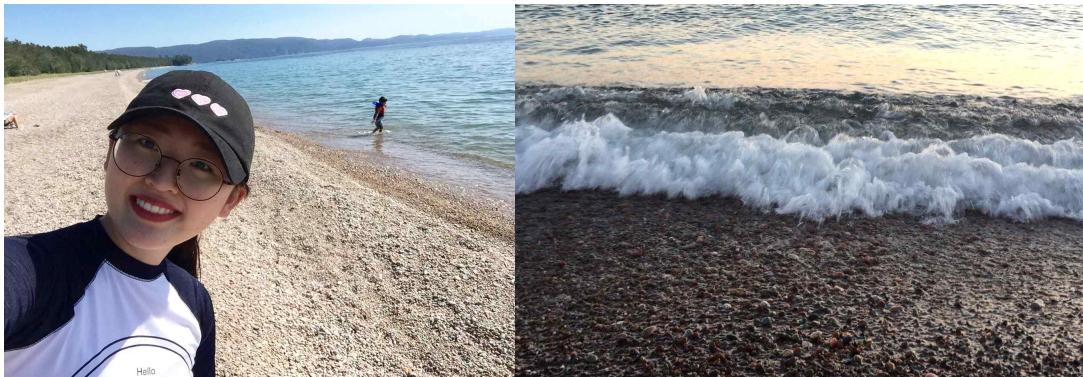
ROTARY Festival - painting부스 봉사활동



Color Run



홈스테이 가족과 2박 3일 Lake Superior 캠핑-1



홈스테이 가족과 2박 3일 Lake Superior 캠핑-2



모카신 키링 만들기



Jade Wellness 봉사활동



딸기밭에서



Bushplane Museum



화창한 날 학교 앞 벤치에서



단체사진